

俛仰亭 宋純의 分財記 고찰

- 奴婢名에 나타난 作名類型을 중심으로 -

박준규*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奴婢名에 나타난 작명유형 몇 가지 |
| II. 分財記 개관 | 1. 容貌類 |
| 1. 체제 | 2. 言行 및 性格類 |
| 2. 표기의 이해 | 3. 用品 및 器具類 |
| 3. 분재 내용 | IV. 맺음말 |

1. 머리말

본 고문서는 조선시대 한국 시가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면앙정 송순(1493~1582)이 8남매에게 써준 친필의 分給文記이다. 송순이 80세가 되던 선조 6년(1572)에 두터운 楮紙에 자필로 쓴 분재기이다.

지금으로부터 435년 전의 墨痕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소중한 국보적인 문화재이다. 말미에는 필자 자신의 手決과 '自筆'이라고 제시한 기록을 보이며, 證參人으로 참여한 宋海賓·宋海宇·陳翼臣·薛雲龍 등 네 사람의 수결도 묵흔으로 역력하여 자료의 신빙성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

본 분재기는 그 동안 송순의 후손이 정성스럽게 보존해오던 중, 1997

*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년에 개최한 국어국문학회의 전국 학술발표대회에서 金一根 교수가 이에 대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¹⁾ 학계에 비로소 공개된 이후, 지금은 潭陽郡의 관리에 의해 한국가사문학관의 전시실에 보존되고 있다. 전적의 내용은 먼저 분급기 작성의 경위를 밝히고, 이어서 이미 출가한 長女로부터 시작하여 8남매에게 奴婢·田畝·家畚·林野 등을 분재하는 각 몫의 제시로 되어있는데, 이는 다음 항 '分財 內容'에서 보인 바와 같다.

嫡庶差別이 심하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자녀들 모두에게 분재하였으며, 특히 이미 출가한 딸에게까지 나누어준 사실의 기록은 매우 흥미롭다. 原典의 기록에 의하면 일찍이 夭死한 자식에 대한 애통함과 아들 '海淸'의 소생인 '德美'를 後嗣로 삼은 사연,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재산 관리에 대한 자상한 당부 등이 명시되고 있어, 분재할 때의 애뜻한 심정과 그 사정을 상상케 한다.

이 분재기는 우선 송순이 俛仰亭을 경영하면서 훌륭한 시조와 가사는 물론 많은 한시를 제작함으로써 국문학상 시가문학을 더욱 빛나게 한 역사적 인물의 친필 고문서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한다. 여기서는 또 당시 통용하던 각종 吏讀表記를 비롯하여 人名 또는 地名에서 보는 漢字로서의 借字表記 用例를 수다하게 찾을 수 있어 국어학적인 면에서 좋은 자료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송순이 거주하던 담양 지역을 비롯하여 南道方言의 借字表記 예가 적지 아니하여 우리의 흥미를 끌게 한다. 이밖에도 조선 중기 사회의 身分秩序와 經濟制度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됨은 물론, 한국문학상 詩歌詩人의 대가로 손꼽는 인물의 가족 실태와 경제적 상황, 그리고 당시 湖南詩壇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던 면양정에 대한 언급을 곁하고 있어, 이는 우리의 소중한 文化財로 지목할 고문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분재기에 등장하는 노비명은 약 210명이다. 분급한 노비 160명을 비롯하여 그 부모 이름에 보이는 35명과 전담 경작자에 나타난 노비 등으로서, 본고는 먼저 분재기 전체를 개관하고, 이어서 이러한 奴婢名을

1) 金一根, 「俛仰亭 宋純 自筆 分財(分給)記의 國語文學的 意義」, 국어국문학회 연구발표대회 요지(1997.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통해 그에 반영된 作名意識의 구명 작업을 위주로 하되, 우선 노비의 대표적 作名類型 몇 가지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덧붙인다.

II. 분재기 개관

1. 체재

본 분재기는 가로 360cm, 세로 65cm 크기의 두터운 楮紙에 총 124행, 4,510자로 작성한 墨筆의 기록이다. 그 서술은 먼저 분급기 작성 경위의 진술로 시작하여 8남매에게의 분재 내용, 그리고 작성자 및 證參者의 서명으로 마무리하였는데, 각 항목별 서술 행수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본 표에 든 다음의 2)~9)는 원전에서 8남매에게의 분재를 구별하여 열거한 재목, 長女成均館進士崔棄母衿·次子珍原縣監海容妻金氏衿·子海淸衿·子海澄衿·申聘壽妻衿·妾子海源衿·妾子支繁衿·支長衿 등을 알기 쉽게 간추려 순서에 의해 나열한 것이다. 이 표기 중 '衿'은 옛말 '깃'의 吏讀表記로서 무엇을 나눌 때에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뭇'을 의미한 말이다.

- | | |
|----------------------|---------------------|
| 1) 작성 경위 : 2행 | 2) 장녀(최기 어머니) : 22행 |
| 3) 차자 해용 처(김씨) : 36행 | 4) 아들 해청 : 15행 |
| 5) 아들 해정 : 11행 | 6) 신담수 처 : 11행 |
| 7) 서자 해원 : 14행 | 8) 서자 지번 : 4행 |
| 9) 지장 : 4행 | 10) 마무리(署名) : 5행 |

2. 表記의 이해

본 고문서 기록의 媒介體는 물론 한자이다. 때문에 漢文의 표기가 적

지 않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양의 기록은 한자의 借用字 표기이다. 이는 분재기 표기의 특색으로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국어학적 중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자의 품과 訓을 빌어 적던 이러한 借字表記은 국어학에서 이르는 吏讀(吏頭)와 그 밖의 표기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한문을 국어문장 구성법을 좇아 배열하여 이에 따를 붙인 것을 말하고, 후자는 人名·地名 등 고유명사를 비롯하여 주로 體言의 표기에 적용되던 借字이다. 이 양자는 다 같은 한자의 차용자이지만, 여기서는 전자를 吏讀文 表記, 후자를 借用字 表記로 구별하여 분재기의 표기를 검토하기로 한다.

* **이두문 표기** : 新羅 때부터 우리말을 표기하던 방법의 하나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주로 胥吏들이 官用文書의 기록에 사용하던 것인데, 이곳 분재기에도 漢文章 속의 敍述文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송순이 평소 이두문 표기를 익히 관용하던 한 예증임을 알게 한다. 이에 대한 분재기의 예문을 들고, 원전의 기록 순에 따라 이두문을 가려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단, 重出의 낱말 열거는 피한다. 아울러 이두문의 이해를 위해 원말을 () 안에 넣고, 문장 속에서 해독되는 그 뜻을 밝혀 각주에 붙인다.

원전의 예 : 隆慶六年 壬申十一月初五日 子息等亦中 奴婢田畝及家舍等乙
 平均分給 各張文記 親自書給爲在果 慮或有遺失者 又於一張良中
 都許與書給爲臥乎事

이두문 : 等亦中²⁾ · 等乙³⁾ · 爲在果⁴⁾ · 良中⁵⁾ · 爲臥乎事⁶⁾ · 衿⁷⁾ · 段⁸⁾ ·

-
- 2) 等亦中(들여히) : ~들에게, ~등에게.
 - 3) 等乙(들음) : ~등을, ~따위를, ~들을.
 - 4) 爲在果(하견과) : ~하거니와.
 - 5) 良中(아해) : ~에, ~에게.
 - 6) 爲臥乎事(하누운 일) : ~하는 일.
 - 7) 衿(깃) : 무엇을 나눌 때에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몫.
 - 8) 段(땀) : ~은(는), ~땀.

爲齊⁹⁾ · 爲行如可¹⁰⁾ · 是如¹¹⁾ · 爲去乎¹²⁾ · 爲良置¹³⁾ · 以¹⁴⁾ · 更良¹⁵⁾ · 爲旃¹⁶⁾ · 乙良置¹⁷⁾ · 亦中¹⁸⁾ · 爲乎矣¹⁹⁾ · 爲昆²⁰⁾ · 并以²¹⁾ · 爲乎事²²⁾ · 安徐²³⁾ · 爲有昆²⁴⁾ · 爲去等²⁵⁾ · 除良²⁶⁾ · 矣²⁷⁾ · 并以²⁸⁾ · 以乎²⁹⁾ · 等³⁰⁾ · 用良³¹⁾ · 衿付³²⁾ · 不冬³³⁾ · 爲有齊³⁴⁾

* **차용자 표기** : 이에 는 한자의 두 가지 기능 가운데 表意機能을 좇아 표기한 訓借字와 表音機能을 좇아 표기한 音借字,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능의 혼용으로 말미암은 音訓借 混用表記가 있다. 본재기의 기록에는 이같은 차용 표기가 그 특색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地名의 경우를 찾아 원전의 일부 예문 및 차용자의 실재를 가려 열거하고, 본 분재기 표기의 핵심이 되

-
- 9) 爲齊(하제) : ~하다, ~하지.
 - 10) 爲行如可(하얏다가) : ~하고 있다가, ~하였다가.
 - 11) 是如(이다) : ~이다, ~이라고, ~이러는.
 - 12) 爲去乎(하거온) : ~하거니와, ~하니, ~하므로.
 - 13) 爲良置(하야두) : ~하여도, ~한 것도.
 - 14) 以(으로) : ~으로.
 - 15) 更良(가새아) : 다시.
 - 16) 爲旃(하며) : ~하며.
 - 17) 乙良置(으랑두, 올랑도) : ~이라도, ~일지라도.
 - 18) 亦中(여해) : ~에게, ~때에, ~경우에.
 - 19) 爲乎矣(하오되) : ~하온되, ~하되.
 - 20) 爲昆(하교) : ~하니, ~하고서.
 - 21) 并以(값, 아오로) : 아울러.
 - 22) 爲乎事(하온일, 하올일) : ~한 일, ~하는 일, ~할 일.
 - 23) 安徐(안서) : ~하지 말 것.
 - 24) 爲有昆(하잇곤) : ~하였으니, ~하였거니와.
 - 25) 爲去等(하거든) : ~하거든.
 - 26) 除良(털어) : ~하지마라.
 - 27) 矣(의) : ~의.
 - 28) 并以(값) : 아울러.
 - 29) 以乎(이온) : ~인.
 - 30) 等(든) : 것, 줄.
 - 31) 用良(쓰아) : 써, 써서, 써.
 - 32) 衿付(깃부) : 뭉을 나누는 것, 나누어 준 뭉.
 - 33) 不冬(안들) : ~안, ~아니(부정사)
 - 34) 爲有齊(하잇제) : ~하였다, ~하였습니다.

고 있는 人名表記의 예는 다음 항 '노비명에 나타난 작명유형 몇 가지'의 설명에 미루어 검토 예시하기로 한다.

원전의 예 : 新池下李德世畚 七斗落只 韓好命畚 六斗落只 乎音橋九스畚
四斗落只 池洞金仁守畚 四斗落只 寺洞千字畚 二斗落只 泉谷前蔡生員畚

차용자 표기 지명 : 所橋(밭다리) · 池洞(못골) · 大初里(대추리) · 蛇池(뱀
못) · 世龍仇스(시렁골) · 自隱仇스(잔골) · 新池(새못) · 乎音橋九스
(흙다리골) · 寺洞(절골) · 泉谷(샘실) · 本無里洞(옛물골) · 無里洞(물
골) · 甑岩(시루바우) · 石橋(돌다리)

3. 分財 내용

각 자녀들에게 재산을 分給한 내용을 통해 당시 분재 상황을 보면 다음
의 표에 보인 바와 같다. 표의 표기 중 '노'는 사내중, '비'는 계집중, '전'은
밭, '답'은 논을 가리키며, ㉠ 표는 원전의 글자가 흐려서 판독하기 어려운
곳의 표시이다. 따라서 이는 분급한 奴婢의 數 또는 田畓의 마지기 수를
위주로 집계한 것이다.

다음 표에 보인 바에 의해 송순이 자녀들에게 分給한 奴婢와 田畓 등의
통계를 들면 奴는 68명, 婢는 92명이고, 田은 119 마지기, 畓은 605 마지
기, 기타 8 마지기 등으로 방대한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嫡庶差別이 심하던 사회에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자식들 모두에게 분재하
였으며, 특히 표에 든 차례 1과 5는 이미 출가한 딸에게까지 분재한 사실
의 기록으로 흥미롭다. 그리고 차례 2는 子婦인 김씨에게 주는 몫이며, 또
차례 2와 3에는 祖上의 제사를 지낼 承重의 몫까지 별도로 명시한 점이
이채롭다. .

35) 김일근, 앞에 든 주 2) 참조. 거기에도 〈分財統計表〉가 소개되어 있다. 이에 보인 통
계는 본고에 든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長女에게 분급한 田畓 가운데 畓
이 131 마지기로 집계 되어 있는 점 등이 그 일례이다.

차례	대상	노	비	전	답	기 타
1	장녀	16	26	22	113	㉠8명, 답㉠
2	해용 처	17	23	23	119	㉠1명, 俛仰亭숨 서당 등 10여 칸, 전후좌우의 松林 및 竹林.
	*承重	4	3		45	기와집 60여 칸, 전후좌우 代田 송림
3	해청	5	7	27	66	기와집 30 칸
	*승중	1	1		8	
4	해징	6	7	16	70	
5	신담수처	5	6	12	75	기와집 37칸
6	해원	12	15	9	68	
7	지번	2	1	5	21	
8	지장		3	5	20	

Ⅲ. 奴婢名에 나타난 作名類型 몇 가지

이름으로 호칭하거나 작명으로 명명될 때 여러 가지의 의미, 즉 이유가 있다. 즉흥적으로 호칭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른 까닭이 있다는 것이다. 인명의 표기에는 모두 이러한 이유를 내포한 表意性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인명을 두고 이른바 作名意識, 또는 作名觀을 운위함은 이 같은 표의성을 찾는 일이 된다. 앞에 든 〈표기의 이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비명은 대부분이 차자표기에 의한 고유어 인명이므로 그 표의성은 한자의 借用으로써 나타낸 셈이다. 다시 말하여 인명에 담긴 작명의식이나 작명관을 지적하려면 먼저 차자표기된 노비명의 해독이 전제되어야 함을 이

른다.

이 같은 해독을 좇아 표의성에 의한 노비명의 작명 유형을 보면 약 열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여러 가지 부류에 대한 분석 정리를 일시에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그 1차적인 발표로서 1) 容貌類, 2) 言行 및 性格類, 3) 用品 및 器具類 등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만을 골라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아울러 각 인명의 제시에는 먼저 표의성에 근거한 낱말의 基本語를 들고, 이에 따른 각 인명의 판독은 () 속에 넣어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되, 한자어 인명인 경우에는 취용한 한자 자체에 작명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감안하여 讀音 그대로 옮겼으며, 또한 노비명의 분류는 각 유형의 구체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은 작명의 표의성을 근거로 하여 열거하였음을 덧붙인다.

1. 容貌類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호칭되면서 그것이 바로 인명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주로 얼굴이나 피부 빛깔, 또는 그 모양 등 인체의 특징에 따라 명명된 이름이다. 단지 그 용모가 어떤 용품이나 도구를 닮음으로 인해 명명된 경우는 편의상 다음 항 〈用品 및 器具類〉의 예시에 미루었음을 덧붙인다.

- * 검다, 감다. : (1) 檢孫(검손) (2) 檢之(검지) (3) 檢同(검동, 검둥이)
(4) 甘德(감덕, 감덩이) (5) 甘金伊(감쇠)

위에 예시한 노비명들은 검다(黑), 또는 감다(밝게 검다)는 말에서 연유한 音借字名이다.³⁶⁾ 살빛이 검은 사람 즉 검둥이를 이른다. ㄱ과 ㄴ의 모음교체, 또는 이에 대한 變異音 차자표기로 말미암은 같은 계열의 노비명들이다.

36) 崔範勳, 「漢字借用固有人名 表記體系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6)
중 “固有人名에 나타난 作名觀” 29쪽. 참조.

또한 위의 (1)에 보인 ‘손’은 원래 손아랫사람을 일컬을 때, ‘사람’보다는 낮추고, ‘耨’보다는 좀 대접하여 쓰는 말이다.³⁷⁾ 이로 인해 노비명에서는 상대방을 낮추어 이르는 인명 접미사의 표기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차차 표기가 곧 ‘孫’이다. 그리고 (3)·(4)의 ‘同·德’은 민간 구어의 검둥이·깁둥이·검둥이·깁둥이·검둥이 등에서 보는 접사 ~둥이·~동이·~덩이(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귀엽게, 또는 홀하게 이르는 말)의 음차이다. 특히 ‘德’이 ‘덩이’의 음차임은 豐德·金德·金伊德 등의 노비명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5)의 ‘金伊’는 한자 ‘金’(쇠 금)의 훈차이다. 거기에 인명 접미사로 관용하는 ‘이(伊)’를 末音添記形으로 첨가시킨 2차 1음절 표기이다.

* 엷다. : (6) 億福(억백, 억배기, 엷빼기) (7) 億朴(억백, 억배기, 엷빼기)

엷빼기(얼굴에 엷은 자국이 많은 사람, 곰보), 엷박엷박·엷벅엷벅(얼굴에 굵고 깊게 엷은 자국이 뻐 모양) 등의 음차로 연유한 이름들이다. 인명 차자에 나오는 億卜·億朴伊·億福伊——등도 같은 계열의 노비명이다. 그리고 (6)과 (7)의 ‘卜’과 ‘福’은 同音異字로서 노비 이름의 접미사에 높은 빈도로 차용된 표기이다. 貴福과 貴卜, 大福과 大卜, 德福과 德卜——등은 노비의 이름에 공용된 그 일부의 예이다.³⁸⁾

* 넓다. : (8) 廣石(넙돌, 넙돌이)

얼굴 넓적한 사람을 두고 호칭한 데서 말미암은 인명 표기이다. 앞 음절의 한자 ‘廣’(넙을 광)과 뒤 음절의 한자 ‘石’(돌 석)의 훈을 좇아 실제 읽히는 口語대로 차차한 표기이다. 그리고 ‘石’은 石乙·石伊 등과 함께 접미

37) 본고에 드는 어휘의 설명은 모두 『금성관 국어대사전』(운평어문연구소 편저, 1996)의 풀이를 기본으로 하였다.

38) 최범훈, 앞에 든 글 62쪽 참조.

사 ~돌·~들이 등의 차자로서 남성명의 대표적 접미사이다.

* 회끔하다, 회다. : (9) 흠수(회끔, 회끔이)

흰머리가 있거나 얼굴이 약간 회게 보이는 사람을 두고 호칭한 이름이다. '회끔하다'의 어근을 그대로 음차한 표기명이다. 뒤 음절의 한자 '수'는 남성보다 여성의 인명에 보다 우세하게 쓰인 접미사이다. 혹시 '기쁘다'는 뜻을 담은 한자 '흠'을 굳이 차용한 이유가 있다면 여자에 대한 작명 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때는 얼굴이나 모양이 희고 깨끗하여 기쁘게 여긴 데서 나온 차자로 생각할 수 있다.

* 털덩이 : (10) 毛德(털덩, 털덩이)

다른 사람보다 몸에 털이 많거나 머리털이 많아 더부룩하게 보이는 사람을 두고, 한자 '毛'(털 모)와 '德'(덕 덕)의 훈과 음에 의해 차자 표기한 이름이다. '德'은 곧 앞에 든 (4) '甘德'의 경우와 같이 '덩이'(작은 덩어리)의 음차로서 계집종을 험하게 보고 호칭한 작명의 표기이다. 아울러 '毛德'은 毛乙介·毛乙童·毛乙洞伊 등의 인명과 동계의 호칭으로 파악된다. 견해에 따라서는 '毛乙'을 음차표기로 전제하여 '몰'로 해독하는 경우도 있다.³⁹⁾ 이에 근거하여 위의 인명을 '몰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더 두고 숙고할 사항인가 싶다('德'의 차자 표기 예는 앞에 든 (4) '甘德' 참조.).

2. 言行 및 性格類

노비명에는 말씨나 행동, 또는 그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내세워

39) 최범훈, 앞에 든 글 68쪽 참조.

호칭한 이름이 유별나게 많다. 말하는 태도나 몸매에 굳혀져 버린 버릇, 육체적인 동작이나 반응, 개인에 따라 타고난 성질이나 소질, 품위 품격에 따라 형성되는 사람의 됨됨이 등을 반영한 인명은 모두 이에 속한다. 다음은 이 부류에 속한 노비명에 대한 설명이다.

* (말을) 더듬다. : (1) 訥介(더듬개, 더듬이) (2) 訥之(더듬지, 더듬이)
(3) 訥只(더듬기)

말을 더듬는 사람을 두고 호칭한 인명의 차자 표기이다. 한자 ‘訥’은 ‘말 더듬다’는 뜻을 지닌 글자인데, 이의 명사형은 ‘말더듬이’이고, 이를 줄여서 이르면 ‘더듬이’이다. 사람을 험하게, 또는 예사롭게 일러 또 ‘더듬개’라고도 한다. 그리고 위의 (1)에 쓰인 ‘介’는 접미사 ‘~개’의 차자다. 주로 도구나 물건을 나타낼 때, 또는 어떤 사람임을 험하게, 또는 예사롭게 나타낼 때 쓰는 말로서, 인명으로는 蒙介·舍廊介·銀介·春介·業成介 등 여성 인명 접미사에서 흔하게 보는 차자 표기이다.

(2)의 ‘之’는 檢之·今之·石之——등의 이름에서와 같이 흔히 뒤 음절에 借用되었던 인명 접미사이며, (3)의 ‘只’는 종래 주로 ‘기’의 음차로 쓰여 왔던 차자 표기이다. 吏讀에서 보는 惟只·爲只·曾只——등이 아기(오직)·하기(하기까지)·일지기(일찍이)——등의 표기가 됨은 ‘只’에 대한 이 같은 차용임을 알게 한다.

* 맵다, 맵살스럽다. : (4) 每邑之(맵지) (5) 每邑德(맵덕, 맵덩이)

‘맵다’(알알하고 따갑다. 사납고 모질다.), 또는 ‘맵살스럽다.’(남에게 미움을 받을만한 데가 있다.)는 뜻에서 연유한 음차 표기의 이름이다. 每邑同·每邑山 등과 같은 계열의 노비명인데, 先音節의 ‘每邑’은 ‘맵다’의 어근 ‘맵’을 음차하여 2자 1음절 구성을 취한 차용자이다. 아울러 (4)의 ‘之’와 (5)의 ‘德’은 앞에 든 (2)와 <용모류>의 (4)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⁴⁰⁾

* 한결같다. : (6) 一定(일정)

위의 (6)은 한자어 인명으로서 그 뜻이 지시하는 대로 모양과 크기, 혹은 하는 행동이 한결같다는 데서 말미암은 인명 표기이다.

* 몽긋거리다. : (7) 蒙矐(몽긋, 몽긋) (8) 夢矐(몽긋, 몽긋)

무슨 일에 신속하지 않고 주저대며 몽긋거리는 사람을 엄두하여, '몽긋' 또는 방언의 '몽금'을 음차한 인명이다. '몽긋'은 즉 '몽긋거리다'(나아가는 시늉으로 앉아서 비비대다)의 어간이며, 부사형인 '몽긋몽긋'은 남도 방언에서 '몽금몽금'이라고도 이른다. 여기서는 그 후음절의 독음을 이와 유사한 인명 접미사 '矐'으로 차용한 예이다. 국어의 한자음에는 '긋'이 없으므로 이를 음차하려 할 때, 인명의 접미사에 대표적으로 쓰이던 한자 '矐'으로의 차자가 손쉬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 냉큼 : (9) 內隱矐(냉큼)

일을 처리하는 데에 민첩하여 주저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이른 호칭의 차자 표기이다. 표준어에서 부사 '냉큼'(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빨리)은 구어에 따라 부드러운 발음으로 '냉금', 또는 '냉금'이라 하고, 이를 반복하는 표현에서는 냉금냉금·냉금냉금이라 한다. 여기에 드는 노비명은 이를 음차한 표기이다. '隱'은 종래의 이두에서도 흔히 終聲 ㄴ의 표기로서 앞음절에 첨기되어 왔는데, 이곳의 '內隱' 2자는 '냉'의 1음절 표기를 위한 차자인 것이다. 이와 같이 1음절에 대한 2자 표기의 예는 위의 (4)·(5)의 인명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위의 '矐' 역시 인명접미사에 흔히 차용되던 표기로서 위의 (7)·(8)의 표기에서 보는 바와 같다.

40) 최범훈, 앞에 든 글 77쪽 참조.

* 도리도리 : (10) 環伊(도리)

본래 이름이 없었던 어린애가 귀엽게 도리도리(어린아이가 어른이 시키는 대로 머리를 좌우로 잘 흔드는 재롱)를 잘하므로 이름처럼 호칭되면서 자리 잡은 인명이다. 앞 음절의 한자 '環'(도리옥 환)은 그 훈에 나타나는 '도리'로 말미암아 이름의 차차 표기가 되었으며, 뒤 음절의 '伊'는 인명 접미사로서 차차된 표기이다. 특히 '伊'는 百伊·斤伊·月伊·淡伊·業伊·双伊 등의 호칭에서와 같이 ㄱ·ㄴ·ㄷ·ㄹ·ㅂ·ㅇ 등 한국 한자음 6종성의 뒤 음절에 자연적으로 발음되는 連音化의 표기이다. 그러나 주로 2음절 이상의 인명 표기에는 비록 '이'의 口語가 따를망정 앞에서 언급한 億福·甘德·檢同·廣石·喜今 등의 인명에서와 같이 '伊'의 음차 표기를 생략하기도 하고, 일부는 秀伊(쉬)·愁伊(쉬)·金伊(쇠)·斤伊(도끼)의 인명에서와 같이 앞 음절과의 결합, 내지는 음절성의 강조, 혹은 2자 작명표기의 관습 등에 의해 차용되기도 하였다.

* 늑늑하다. : (11) 仍邑同(늑동, 늑동이)

너그럽고 활달하여 늑늑한 사람을 두고 호칭한 인명의 표기이다. '仍邑'은 곧 2자 1음절 표기의 차용자이다. 그 중 '邑'(고을 읍)은 또 그 독음의 종성인 'ㅂ'의 취음으로서, 위의 (5)에서 언급한 '每邑德'의 경우와 같다. '仍邑'은 곧 종래의 仍邑先·仍邑壯 등의 인명에서와 같이 '늑'의 표기로 익히 차차된 표기이다.⁴¹⁾ 아울러 인명 접미사에 관용되던 '同'은 '童'의 표기와 호용되면서 접미사 '~동이(~동이)'의 음차로 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앞에 든 <용모류>의 (3) 檢同 참조)

41) 최범훈, 앞에 든 글 32쪽 참조.

* 허겁지겁하다. : (12) 知劫德(지겁덩이, 지겁둥이)

마음이 튼튼하지 못하여 정신없이 허둥지둥하거나 겁이 많은 사람을 두고 호칭한 인명이다. 표준어 '허겁하다'(마음이 실하지 못하여 겁이 많은 것), 또는 '허겁지겁하다'를 지방에 따라 '지겁하다'라고 이르는데, 구어에 서는 후자가 더 널리 통용되고 있다. '知劫'은 이때의 어간 '지겁'을 음차한 예이다. 그리고 끝 음절의 '德'은 이미 지적한 '甘德', 또는 '毛德'의 경우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同·童 등과 같은 인명 접미사로서 '~덩이', 또는 '~둥이'의 차자 표기인 것이다.

* 심심하다 : (13) 澹伊(심심이, 슴슴이)

음식의 짠맛이 보통보다 덜 가진 상태를 두고 '심심하다'고 한다. 이는 또 할 일이 없이 시간만 보내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도 통용되는 어휘이다. 옛말이나 방언에서는 '스슴하다'고도 이른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 하여 별다른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사람을 두고 이른 호칭이 곧 '심심이(스슴이)'이고, 위에 든 (13)은 이의 차자 표기이다. 즉 '澹'(싱거울, 슴슴할 담)의 훈을 기본으로 하여, 거기에 접미사 '~이'를 덧붙여 '伊'로 차자함으로써 작명의 표기가 된 것이다. '伊'의 쓰임은 위에 든 (10)의 설명에서 보인 바와 같다.

* (심술)사납다. : (14) 心通毛老(심술멸, 심술머리)

심술이 사납거나 심한 사람을 얹잡아 일컬은 차자 표기이다. 심통(心通)은 '심술'의 類似語이고, 심술머리·심술멸·심술딱지·심술꾼 등의 어휘는 이에서 연유한 파생어들이다. 이어서 접미사 '~멸·~머리'를 근사한 표음으로 음차하여 2차 표기한 것이 '毛老'라 하겠다.

* 업승이 : (15) 業成介(업승개)

하는 짓이 변변하지 못한 사람을 조롱하여 일컫는 ‘어승이’에서 接辭 ‘~이’를 인명 접미사에서 관용하는 ‘~介’로 대신하여 음차한 노비명이다. ‘~介’는 앞에 든 (1)의 ‘訥介’의 설명에서 보인 바와 같다.

* 푸지다. 풍덩하다. 넉넉하다. : (16) 豊非(푸짐, 푸지비) (17) 豊德(풍덩) (18) 豊介(푸짐, 푸지개) .

위의 (16)은 ‘푸지다’(많고 넉넉하다)의 어간을 한자 ‘豊’으로 차자하고, 거기에 인명 접미사로 관용하는 ‘~非’를 첨기한 표기이다. 또한 위의 (17)은 ‘풍덩하다’(넉넉하다)의 어간을 음차한 인명으로서 ‘豊非’와 同軌의 인명이다. 후음절의 ‘德’은 앞에 든 ‘甘德’의 경우와 같이 인명 접미사 ‘~덕(~덩이)’의 음차이다. 위의 (18) 역시 같은 계열의 노비명이다. 아울러 후음절에 나오는 ‘介’는 접미사 ‘~개’의 차자로서, 앞에 든 (1)의 설명에서 보인 바와 같다.

* 향기롭다. : (19) 香蘭(향란) (20) 香綠(향록) (21) 香今(향금)

위의 (19)는 은근한 향기 풍기는 蘭처럼 고아한 인품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호칭된 계집종 이름이다. 여자 이름에 등장하는 花卉類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단연 이같은 蘭을 손꼽는다. 아울러 위의 (20)은 차자된 한자의 뜻이 지시하는 대로 향기롭고 싱싱한 녹색이 감도는 인품을 지닌 사람을 가리킨 작명이고, (21) 역시 같은 계열의 노비명이다. 특히 후음절의 한자 ‘今’은 이미 언급한 喜今·夢今·蒙今·丙隱今을 비롯하여 銀今·永今·春今 등 차용 빈도가 높은 인명 접미사의 대표적인 차용자이다. 同音異字인 ‘金’과도 호용하는 등 인명 접미사로서의 용례가 다양한데, ‘~今’은 특히 女性名에 관용된 차자임을 알 수 있다.

- * 착하다. 진실하다. : (22) 善金伊(선쇠) (23) 萬眞(만진)
(24) 允石(윤돌, 윤돌이)

위의 (22)는 마음씨 착하고 선량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내가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호칭한 이름이다. 한자 '善'(좋은, 착할 선)은 일상의 口語에서 이미 그 독음으로 널리 통용된 말이므로 여기서도 이를 음차한 표기로 생각된다. 그리고 '金伊'는 한자 '金'(쇠 금)의 훈을 좇아 1음절 2자 표기를 취한 예이다. 흔히 1자 표기로 차자되는 '~金'과 함께 널리 통용되던 인명 접미사의 표기이다. (<용모류>의 (5) '甘金伊 : 감쇠' 참조)

위의 (23)은 매우 진실한 사내, 또는 너무 天真하여 우직한 사람임을 염두하고, 그 호칭을 혼차한 인명이다. 노비명에는 수 개념으로 취용한 한자 '萬'의 차용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 참된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의미까지 내포한 작명이라 하겠다. 이어서 위의 (24)는 앞 음절의 한자 '允'(진실로, 마땅할 윤)의 훈으로 미루어 진실하고 믿음직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호칭한 인명의 차자이다. 노비명에 적지 않게 나타나는 한자 '允'은 允介·允金·允男·允實——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독음이 이미 익혀져 주로 음독되는 표음 그대로를 借用한 표기로 판단된다. 아울러 후음절의 한자 '石'(돌 석)은 인명에서 흔히 쓰는 접미사의 용례로 보아 혼차에 의한 표기로 해독된다. (<용모류>의 (8) '廣石 : 넓돌, 넓돌이' 참조)

- * 공손하다. 순하다. 압전하다. : (25) 順代(순대) (26) 孫同(손동이, 손둥이) (27) 謹世(근세) (28) 注叱沙里(죽사리)

위의 (25)는 거역함이 없이 잘 따르는 온순한 사람을 일러 호칭한 女婢의 이름이다. 후음절의 한자 '代'는 흔히 인명 접미사로 쓰였던 한자 차용 표기로서 銀代·貴代·玉代 등 차용빈도가 비교적 높다. 때에 따라서는 일

상어에서 상대방을 얹잡아 지칭하는 ‘년’이나 ‘놈’의 경우까지 대응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주로 여자 이름에서 많이 보는 예이다.

위의 (26)은 순하거나 겸손한 아이를 귀엽게 여겨 부른 사내종의 이름이다. 한자 ‘孫’(겸손할, 순할 손)의 뜻을 엄두하여 호칭한 인명이므로, 접미사 ‘~동이’(어떤 특징을 가지는 사람을 귀하게, 또는 홀하게 여기는 말)는 ‘~동이’의 표준어인 바, 이를 1자로 음차하여 한자 ‘孫’과 접속시킨 표기가 곧 ‘孫同’이라 하겠다. (<용모류>의 (3) ‘檢同 : 검둥, 검둥이’ 참조) 이어서 위의 (27)은 한자 ‘謹’(삼갈, 공경할 근)에 담긴 훈을 좇아 조심성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내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호칭한 새내종의 이름이다. 후음절의 ‘世’는 흔히 가계의 ‘代數’를 말하거나, ‘百年’을 뜻할 때에, 또는 ‘世上’의 의미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본래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되어 단순히 사람을 가리키는 인명 접미사의 차자 표기로 나타난 예라고 하겠다.

(28)은 일에 임하면 모질게 힘을 다하는 사내, 죽살이치는 사람을 두고 호칭한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한자 ‘叱’의 표기는 주로 促音 ㅅ의 차자로 관용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注叱德’(죽덕, 죽덩이), 또는 ‘注叱同’(죽둥, 죽동이) 등의 인명에서와 같이 앞 음절의 ㄱ중성으로 차용되던 일종의 造字式 표기이다.⁴²⁾ ‘죽살이’(죽고 삶을 다투는 인생)는 구어에 따라 죽사리·죽살 등으로 통용되는 바, 이 같은 어휘의 음차 표기가 곧 ‘注叱沙里’이다. 따라서 ‘살이’는 타향살이·더부살이 등의 어휘에서 보는 접미사로서, 連音化되는 口語에서 흔히 ‘사리’로 발음되는 바, ‘沙里’는 이의 음차 표기이다.

* 어리다 : (29) 蒙萬(얼마니)

어려서 어딘지 덜 되게만 보이는 야무지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다. 국어에서 보는 접두어 ‘얼’은 ‘되다가 못 된, 똑똑하지 못한’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한자 ‘蒙’(어릴 몽)의 훈을 약칭으로 이르는 ‘얼’과 무관하지 않다.

42) 최범훈, 앞에 든 글 139쪽 참조.

또한 뒤 음절의 한자 ‘萬’(일만 만)은 수 개념의 차자라기보다 인명 접미사로서 ‘사람’의 뜻을 내포한 표기이다. ‘똥마니’(범죄 집단에서 부하를 속되게 이르는 말)의 ‘마니’, 또는 산삼을 캐는 심마니들이 이르는 ‘마니’에 내포된 사람의 의미와 상통하는 말로서, 이는 ‘마니’의 이형인 ‘만’의 차자인 셈이다.

* 돌돌하다. : (30) 石只(돌만이, 똥만이)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있어 의지함이 없이 돌돌하기만 하는 사내를 이르되 한자 ‘石’(돌 석)과 ‘只’(다만 지)의 훈을 빌어 차자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돌돌하다’의 된소리 말은 ‘똥똥하다’이고, 그러하기만 하는 ‘똥마니’는 이에서 파생된 어휘이다. 이의 사전적 의미는 앞에 든 ‘蒙萬’의 설명에서 제시한 바와 같지만, 여기서는 범죄 집단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영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등, 일상 구어에서 그 의미의 내포는 다양하다. 아울러 뒤 음절의 ‘只’는 이두에서의 표기는 물론, 노비명 ‘莫只(마기)’에서와 같이 주로 ‘기’의 음차자였지만, 이곳 인명에서의 ‘只’는 이와 달리 훈차표기의 예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똥 : (30) 同吡今(똥금) (31) 同吡非(똥비)

動物의 排泄物인 ‘똥’이라 한 어휘를 작명에 넣어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천한 것을 인명의 호칭으로 한 예는 賤名이 오히려 長壽하고 多福하다는 민속 관념에서 말미암은 賤名意識의 반영이다. 종래 차자 표기에서는 ‘똥’을 ‘分吡’으로, ‘똥’을 ‘同吡’로 2자 표기하는 예가 적지 않았으니, 同吡伊·同吡禮·同吡男 등의 노비명에서와 같이 ‘吡’은 앞 음절의 硬音化를 위한 첨가 차자로 차용된 한자이다.⁴³⁾ 그리고 말음절에 보인 ‘今’은 앞에 든 (21) ‘香今’의 설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이름에 빈도 높게 관

43) 최범훈, 앞에 든 글 107쪽 참조.

용된 인명 접미사의 차자이다.

그리고 접미사 ‘~今’이 위의 (31)에서 ‘~非’로 나타남은 차자표기만 다를 뿐, 이 역시 인명에 흔히 관용되던 여성명 접미사의 대표적인 예이다. 위의 (16) ‘豊非’를 비롯하여 石非·竹非·能非——등 다수의 노비명에 취용된 차자이다. 즉 작명 중 뒤 음절에 쓰인 한자 ‘非’는 ~伊·~介·~孫 등과 같이 주로 종의 호칭에 관용된 여성 인명 접미사로 지적된다.

* 질질 : (32) 長介(질개)

‘질질’(주책없이 무엇을 흘리는 모양), 또는 ‘질질대다’(질질 울다)의 어근 표기를 ‘長’(길 장)으로 혼차하고, 이에 인명 접미사로 ‘介’를 첨가시켜 표기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길다(長)’는 주로 남방 방언에서 口蓋音化되어 ‘질다’라고 이른다. 이때의 어근 ‘질’은 ‘질질’과 같은 表音節이므로 연유하여 한자 ‘長’으로 혼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곳 노비명은 원래 어렸을 때 질질대며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오줌싸개’를 뜻한 데서 나온 지칭이 아니면, 결핍하면 우는 ‘울보’를 가리켰던 어휘로 말미암은 작명이라 하겠다.

3. 用品 및 器具類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용품, 특히 농경사회에서 소용되던 물건의 명칭이 노비의 호칭으로 등장되기도 하고, 온갖 연장과 도구들의 부름이 바로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하여, 이를 차자 표기한 예가 이곳 부류에 속한 노비명들이다. 분재기에 나타나는 이 같은 종류의 차자명을 가려 들면 다음과 같다.

* 도끼 : (1) 斤伊(도끼) (2) 斤杯(도끼잔) (3) 都致(도치, 도끼)

나무를 찍거나 썰 때 쓰는 연장, 즉 도끼를 이름으로 대신하여 호칭한

사내중 이름의 표기이다. 위의 (1)·(2)는 한자 '斤'(도끼 근)의 훈을 빌어서 호칭한 이름의 차자이다. 뒤 음절의 '伊'는 앞의 〈言行 및 性格類〉에 든 (10) '環伊'의 경우와 같고, 한자 '杯'(술잔 배)는 그 훈을 빌어서 차자한 예이다. 그리고 '도끼'는 옛말로 '도척'로 전하고, 방언에서 주로 '도치'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를 음차한 표기가 위에 든 (3)의 '都致'이다.

- * 바리 : (4) 件里同(바리동, 발이동, 바리동, 발이동).
(5) 件里介(바리개, 발이개) (6) 件里德(바리덕, 발이덕)

놋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 또는 중의 공양 그릇을 '바리'라고 하는데, 위의 예시는 그 얼굴이 이러한 밥그릇을 연상케 하는 사람을 두고 호칭한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한편, 한자 '件'(조건, 가지 건)의 훈으로 일컫는 의존명사 '가지'는 것·벌·치 등의 뜻을 갖는다. 그 가운데 '벌'은 옷이나 그릇 등을 말한다. 이두에서도 '발기'(벌기, 물건 이름이나 수량을 적은 목록)를 '件記'로 차자하여 왔다. 그리고 '발(벌)'이 일상의 구어에서 연음화될 때 나타나는 '리'를 '哩'로 음차하고, 거기에 인명 접미사로 관용하는 '同·介·德' 등을 첨기한 작명이 곧 같은 계열의 노비명 차자 표기로 나타난 것이다. (앞에 든 〈용모 및 언행류〉에서 예시한 노비명 '檢同·訥介·檢德' 등의 설명 참조)

- * 팽이 : (7) 彭伊(팽이)

아이들이 얼음판이나 길바닥에서 굴리며 노는 팽이를 음차한 사내중의 이름이다. 뒤 음절의 한자 '伊'는 앞에 든 環伊·淡伊 등의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명 중 유별나게 관용된 접미사의 음차자 표기이다.

- * 팽개 : (8) 平介(팽개)

논이나 밭에서 새를 쫓는 데에 쓰는 '팡개'에 비유하여 홀하게 호칭한 데서 연유한 노비명의 차자 표기이다. 남도 방언에서 '팡개'를 '팽개'라 하고, '팡개치다'는 '팽개치다'로, '팔매'(조그만 돌 따위를 멀리 던지는 일)를 '팻매'라고 하는 등, 다양한 파생어가 있는데, 이러한 말의 '팽개'가 'ㅍㅅ'로 음차 표기된 예이다. 뒤 음절의 'ㅅ'는 인명 접미사 중 흔히 여성명의 접미사에서 보는 차자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위에 든 2. <언어 및 성격류>의 '訥介' 참조)

* 망구지 : (9) 命仇知(망구지)

시루의 구멍을 막아 그 안의 것이 새지 않도록 하는 '시룻밧'을 달리 '망구지'라고 하는데, 이를 호칭으로 삼아 부른 사내종 이름의 음차 표기로 보인다. 노비명으로 알려진 '亡仇知'와 동계의 인명으로서, 이의 擬音의 표기로 판단된다.

* 수대 : (10) 水代(수대)

손·발·얼굴 등을 씻을 때에 소용되는 대야, 또는 물을 풀 때에 이용되는 바가지처럼 둥글넓적하거나, 半球型으로 생긴 계집종을 일러 호칭한 이름이다. 이는 女婢를 홀하게 여기는 作名意識의 반영이다. 표준어 대야나 바가지를 남방 방언에서는 주로 '수대'라고 하는 바, 이를 그대로 음차한 이름이다. 뒤 음절의 '代'는 또 인명접미사로서 관용하는 차용자인데, 앞에 든 <언어 및 성격류>의 (25) '順代'의 해독에서 보인 바와 같다.

* 막이. 마개 : (11) 莫只(마기) (12) 莫介(마개)

위의 (11)은 종래 남자 선호사상에서 아들 생산만을 원한 나머지, 딸을 낳으면 그것으로 끝막이가 되어, 앞으로의 딸 생산을 금하고자 한 마음에

서 호칭한 계집종 이름의 차자이다. 즉 어휘 '막다'(防)의 어간이 접미사 ~이·~애·~암 등과 결합하면 발음의 連音化로 마기·마개·마감 등의 명사를 이룬은 자연적인 口語現象인데, 그중 '기'의 음차자는 '只'이다. 莫今·莫介 등의 인명도 이로 인해 생긴 호칭의 표기이다. 우리말의 吏讀에 쓰인 曾只(일지기 : 일찍이)·最只(안자기 : 가장)·습只(시기 : 시킨) 등을 비롯하여, 大阿只(큰아기)·阿只老味(아기놈)·岳只(아기) 등의 노비명에 나오는 '只'가 한결같이 '기'의 음차임은 같은 예이다.

위에 든 (12)의 '莫介' 역시 여자의 생산이 이만 마감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나온 계집종 이름의 음차 표기이다. 즉 어휘 '막다'(防)의 어간이 명사형 접미사 '~애'에 연음화 되면서 나타난 어휘 '마개'를 음차자한 표기이다. 또한 뒤 음절의 '介'는 인명 접미사로서 관용되어온 차자임은 앞에 든 (8) '平介'의 설명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 몽둥이 : (13) 蒙同(몽둥, 몽둥이)

사람 또는 짐승을 때릴 때에 쓰는 막대기, 즉 몽둥이에 비유해서 호칭한 이름의 音借表記이다. 노비명 가운데 蒙同伊·夢同伊·蒙唐伊—등은 같은 계열의 漢字 借字人名이다. 뒤 음절의 '同'은 인명 접미사로 흔히 쓰는 '~동'의 차자 표기인데, 위에 든 노비명의 예로 보아 접미사 '~둥이'를 차자 표기한 '~同伊'의 준말 표기인 셈이다.(앞에 든 <容貌類>의 (3) '檢同' 참조)

* 매(질) : (14) 每叱之(매질이)

남을 잘 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두고 이른 노비의 이름이다. 이른바 매질꾼이나 다름없는 사람의 호칭이다. 앞 음절의 한자 '每'는 몽둥이·막대기·회 등을 총칭하여 이르는 '매'의 음차이고, '叱'은 흔히 促音 ㅅ의 차자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독음인 '질'을 그대로 음차한 것이니, 매로 때리는

‘매질’을 그대로 차용한 표기가 곧 ‘每叱’이다. 아울러 ‘之’는 ‘伊’와 서로 호용되면서 작명의 末音節에 관용되는 인명 접미사의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 * 막대기, 작대기 : (15) 莫德(막더기, 막덩이, 막대)
(16) 勺德(작더기, 작덩이, 짝대, 짝대기)

천하게 여기며 얹잡아 보는 작명 의식에서, 긴 막대기(작대기)처럼 생겼다 하여 음차 표기한 노비명들이다. ‘막대기’라 한 표준어는 일상의 구어에서 막대이·막땡이·막덕이·막덩이 등 언어 습관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된다. 2음절의 표기로는 末音節 ‘이’의 생략이며, 제 2음절의 덕·땡·덕·덩 등은 주로 ‘德’으로 차차되었다. 아울러 위의 (16) ‘勺德’은 ‘爵大’라 한 이름과 동계의 인명 차차 표기인데, 口語의 호칭으로 ‘勺德伊’를 전제한다면 이는 ‘伊’의 생략형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뒤 음절의 ‘德’은 이미 언급한 ‘甘德’의 경우와 같이 인명 접미사로서 ‘~덕(~덩이)’의 음차이면서, 여기서는 특히 가늘고 긴 막대기를 이르는 ‘대’의 음차를 겸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 * 대비 : (17) 竹非(대비)

가는 땃가지나 잘게 찌른 대오리를 엮어 만든 대비에 비유하여 호칭된 계집종 이름의 訓·音借 표기이다. ‘~非’는 곧 계집종의 인명에 관용되던 女性人稱接尾辭의 표기를 겸한 셈이다.

- * 베개 : (18) 杯介(베개, 비개)

사람의 머리 밑에 베는 베개를 닮은 사람, 또는 베개의 역할을 잘하거나, 잠자기를 좋아하여 베개를 벗으로 삼는 계집종을 두고 호칭한 노비명

의 차자 표기이다. 표준어 '베개'는 방언에 따라 배개·베게·비개 등 다양한 어형으로 통용되는데, 이를 한자로 음차한 표기가 '杯介'이다. 한편 '介'는 앞에 든 豐介·訥介 등에서와 같이 흔히 인명 접미사로 관용한 차자이면서도, 그 용례는 다양하다. 여기서는 특히 이미 언급한 平介·莫介는 물론 '蒙介'(멍개) 등의 경우와 같이 未音節 '개(게)형'의 어휘를 인명으로 취할 때 역시 으레 '介'로 표기하였던 차용자의 예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 맺음말

송순의 분재기는 비록 漢文의 기록이라 하지만, 당시 자각한 지식인의 創意的 表記意識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문헌으로 지적된다. 맹목적인 한문의 기록이 아니라, 한자의 품과 訓을 빌어 우리말을 固有語 構成法을 좇아 추구한 표기체계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표기체계를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누어, 주로 ㅈ의 표기에 취용하던 吏讀文과 體言의 표기에 적용하던 借字表記로 類分하였다. 여기에 쓰인 이두의 용례는 약 30여 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조선시대 吏讀의 사용 및 文字生活의 변천을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 고문서는 송순이 8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글자 그대로의 分財記이다. 分給한 재산의 종류는 奴婢·田畝·家屋·山林 등이었는데, 그중 노비와 전답이 주를 이룬다. 각 몫으로 분재하는 기록이므로 그 표시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노비의 경우 재산으로 주는 人名을 들되, 奴(사내종)와 婢(계집종)로 구분한 性別과 나이, 부모 이름과 출생 차례 등을 명시하여, 이른바 奴婢譜나 다름없는 기록을 이루었다.

물론 부모의 이름, 또는 출생의 차례를 알 수 없는 노비는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사들인 노비 역시 이 점이 분명하지 못하면 단순히 '買得'이라 표명하였지만, 분재하는 노비는 대부분이 그 신상을 명시한 점이 기록상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전답의 경우 역시 밭(田)과 논(畝)을 구분하여, 마지기(斗落只) 단위로 그 수량을 명시함은 물론, 소재지와 당시의 경작자 이름까지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기록 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게 하는 부분은 奴婢名에 대한 표기이다. 분재의 대상이 된 160명의 노비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그 부모의 이름까지 함께 밝혀 있어, 그것은 주로 作名意識을 알게 하는 우리 고유어 인명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흥미를 자아내게 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 점에 유의하여 분재기에 나타난 작명유형을 약 열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즉 容貌類를 비롯하여 言行 및 性格類·生長 및 出身 身分類·用品 및 器具類·玉石 및 金銀類·動植物 및 魚貝類·壽福 및 富貴 祈願類·緣故地類·民俗類 등이다. 그 중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세 가지를 택하였다. 이에 속한 노비로서 용모류의 10명, 언행 및 성격류의 32명, 용품 및 기구류의 18명 등 도합 60명의 노비명을 대상으로 거기에 내포된 表意性을 찾아 작명의식을 추구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큰 가치를 지니는 본 분재기는 특히 國語文學의 인 면에서 소중한 자료가 됨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그 근거가 되는 일례로 송순의 次子妻 金씨에게 분급한 기록 중에서 “俛仰亭舍書堂并十餘間”이라 한 표기만 보아도 이는 당시 호남시단의 중심 역할을 했던 俛仰亭 주변에 여러 칸의 書堂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시의 학문 활동과 詩壇의 무대를 상상케 하는 기록으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宋 純, 『自筆 分財記』,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金一根, 「俛仰亭 宋純 自筆 分財(分給)記의 國語文學的 意義」, 국어국문학회 연구 발표대회 발표문,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1997.

崔範勳, 「漢字借用固有人名 表記體系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6.

〈Abstract〉

A study on Bunjaegi(分財記) of
Myeonangjeong(俛仰亭) Song, Soon(宋純)

Park, Jun-gyu

Bunjaegi(分財記),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old document written by Song, Soon who is one of the most famous writers in Chosun Dynasty. It describes the inheritance of properties including land, houses and servants to his offspring.

Bunjaegi is based on Chinese characters. However, it includes the creative description with sound and meaning borrowed from Chinese characters. The two writing systems were Idu(吏讀) and Vicarious Character. Idu letters were made in the same way the Korean sentences were formed. Vicarious Character, which remarked Korean substantives, was used in giving a servant's name or geographical name.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list Idu letters in Bunjaegi and to study on people's perception of giving a name to a servant by interpreting the borrowed Chinese character used in person's name. Therefore, I will provide ten types of giving a name and attempt to define the perception of giving a name by investigating implied ideographic nature about three typical types of Appearance image, Speech-behavior and personality, Supplies and appliance.

Key word : Bunjaegi(分財記), Idu(吏讀), Vicarious Character, The borrowed Chinese character, The perception of giving a name